

카프카즈 원정대 <마흔다섯번째 편지>

생수의 강이 될지어다 (Be the rivers of living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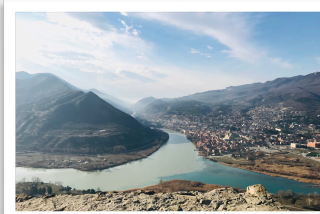
마가복음 11:22-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카프카즈를 향한 약속>



이사야 61 :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산을 옮기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화과 나무가 이튿날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말랐을까?” 감탄해하는 장면입니다. 하루 아침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뿌리채 나무가 마르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만약 너희가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신기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행본문 마태복음 21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는 장면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타락과 불순종으로 스스로 열매 맺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은 이미 어떤 가지에서도 열매를 낼 수 없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라는 상급을 주리라 말씀 하시며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는 기도의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일어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기도의 권세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번에 차량 구입을 위해 재정 모금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차량 재정은 일부분일 뿐이고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뤄가실지, 더 크고 놀라운, 정말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더욱 크신 일들을 이뤄가실텐데, 그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지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지아 라는 민족을 유업으로 얻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구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보았던 엘리야처럼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달라는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비를 머금고 다가오는 저 부흥이, 그 구원이, 자유와 치유와 공급과 기쁨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 앞에 작은 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제목

1.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위해 이 땅에 더욱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합니다. 더욱 많은 교회와 선교팀들이 이 땅을 방문하고 섬길 수 있도록
2. 선교사 훈련 및 개척팀 파송을 위한 훈련 베이스로 조지아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3. 공동체가 있는 쪼도레티(tsodoreti) 마을에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겨진 영혼들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접한 자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4. 이번 여름 찬틀리스쿠레에서 기독교 복음 캠프에 왔던 아이들과 그 가정들에 영적인 공격들을 기도로 파하고, 지속적인 양육과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선편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도록
6.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의 절반 정도의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신 분들의 순종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당신을 얻게 되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더욱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 전초기지 -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우물

이번 여름 마지막 단기팀이었던 청소년팀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역 나눔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식사도 마쳤는데 시간이 좀 남게 되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2~3시간이라도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저희 집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이웃, 아제르바이잔 사람의 가정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첫째 딸(19), 둘째 아들(18), 셋째 아들(12) 이렇게 다섯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그린 그림들 중에 예수님 그림이 몇장 있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고 물었습니다. 알고보니 트빌리시 수도 근교에 사는 이 자녀들은 모두 조지아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이 전부 조지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듣고 알게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청소년팀이 기회를 잡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피흘림으로 너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그분을 너의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네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면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길이 열린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첫째딸이 난감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자신은 무슬림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듣고 있던 엄마와 첫째 아들이 왜 하면 안되냐고, 자신들은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아들도 자신도 하겠노라 말하니, 첫째딸이 그럼 다같이 영접 기도를 하자고 말하며 온 가족이 다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하기까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우물을 터트리시고 이 마을을 적시고 계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찬틀리스쿠레 교회

찬틀리스쿠레로 매주 주일에 찾아와 이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현지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마니 목사님) 그분의 교회는 1시간 거리의 좀 더 큰 도시에 있는데 로마니 목사님이 목회 하시던 교회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서 갑작스레 교회를 나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하셨기에 교회 예배당도 목사님 사모님이 거하실 처소도 모두 한번에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보자분들의 기도로 일단 교회는 월세를 내며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크기의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 건물에는 방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로마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비용을 따로 내면서 모텔 같은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현지 교회를 도우라는 사인을 주시고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찬틀리스쿠레 가정 교회이고, 이 가정교회와 함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로마니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실정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역자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